

# 폴란드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06.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10
IV. 국제신인도 .....	13
V. 종합의견 .....	16

## I. 일반개황

면 적	312천 km <sup>2</sup>	G D P	4,877억 달러(2012년)
인 구	38.90백만 명(2012년)	1 인 당 GDP	12,538 달러(2012년)
정 치 체 제	내각책임제	통 화 단 위	Zloty (PLN)
대 외 정 책	유로존 가입 추진	환 율(달러당)	3.26(2012년)

- 폴란드는 유럽 중동부, 발트해에 면한 국가로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및 리투아니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국토 면적은 한반도 면적의 1.4배 수준이고 인구는 3,890만 명 정도로 파악됨.
- 2004년 EU 가입 이후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친 EU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 EU 관계가 호전되고 있음.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다소 침체되었으나 EU 회원국 중 가장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IMF와의 신축적 신용공여계약 체결 등으로 국제신인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됨.
- 헝가리, 체코 등과 함께 1996년 OECD, 1999년 NATO에 가입한 데 이어 2004년 5월에는 EU에 가입함.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 유로존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둔화 등으로 2012년 경제성장률 둔화

- 폴란드는 2004년 5월 EU 가입 이후 서유럽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폴란드에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유로존의 경기호조로 수출이 증대하고 실질임금 상승에 따라 민간소비가 증가하면서 2006년 이후 연평균 6%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08년 하반기 이후 폴란드 경제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으나 유럽 국가 중에서는 타격을 비교적 덜 받았으며, 2009년에는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경제성장률(1.6%)을 기록함. 이는 낮은 대외 무역의존도, 민간부문의 채무상환부담 경감, 소득세 감면, EU 기금 수혜를 통한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등에 기인함.
- 2010년에는 전년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노동시장 여건 개선에 따른 내수 증가, 해외수요 회복으로 인한 제조업체의 생산 증가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3.9%로 회복되었으며, 2011년에도 4.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2012년에는 유로존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둔화로 경제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어 2.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EU회원국 중 가장 양호한 수준임.

#### □ 2011년 이후 재정수지 적자폭이 축소되고 있으나, GDP 대비 -3% 초과 수준 지속

- 폴란드의 2009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전년의 -3.7%에서 -7.4%로 크게 악화되었으며, 2010년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재정지출 억제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감면, 지방정부의 지출 증가 및 투자 확대, 공적채무 이자지급 증가 등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상승한 -7.9%를 기록함.
- 그러나 재정(지방정부) 지출 억제, 공기업 민영화 및 배당금 수입, 부가가치세율 인상(22%→23%), 경기회복에 따른 세입 증가 등에 힘입어 2011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5.0% 수준으로 축소됨.

- 2012년에는 경제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연금제도 개혁 등 강력한 긴축 정책과 공기업 민영화 등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가 -3.5%까지 축소됨. 그러나 이는 폴란드 정부가 수립한 2012년까지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를 -3% 이하로 억제한다는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 정부채무는 관리 가능한 수준

- 유럽 재정위기에서 나타난 경제위기국의 공통적인 문제는 재정수지 적자 악화뿐만 아니라 정부채무의 과중한 부담으로 경제운용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인데, 폴란드의 경우 GDP 대비 정부채무 비중이 55% 수준으로 아직은 외채관리상의 문제점이 심각하지 않은 상태임.

- 정부채무/GDP: 50.9%('09) → 54.8%('10) → 56.4%('11) → 55.1%('12)

#### □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5~4.5%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 폴란드는 체제전환과정에 있었던 1992~2001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8%를 기록했으나 이후 안정적 물가관리에 성공해 2002~2011년 평균 물가상승률은 2.6%를 기록함.
- 2008~09년 동유럽 경제위기가 심화된 시기에 폴란드도 통화가치의 급락으로 수입 식료품과 연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 불안을 겪었으나, 2009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하반기 이후의 통화가치 회복, 경기침체로 인한 임금하락 등의 영향으로 3.5%를 기록함(2008년 4.2%).
- 2010년 통화가치의 일시적 급락으로 수출이 호전되고 경제위기가 진정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6%를 기록하였으나 2011년에는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급등, 간접세(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인상, 내수 증가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3%를 기록함.
- 2012년에는 즈워티화 약세와 국제유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세 둔화와 식료품 가격 안정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되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수준보다 소폭 하락한 3.7%를 기록함.

\*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범위: 1.5~3.5%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경제성장률	5.1	1.6	3.9	4.3	2.0
재정수지 / GDP	-3.7	-7.4	-7.9	-5.0	-3.5
소비자물가상승률	4.2	3.5	2.6	4.3	3.7

자료: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유럽 경제권에 편중된 무역 및 금융구조

- 1990년대 체제전환 이후 농업 및 제조업의 GDP 대비 생산비중이 크게 위축된 반면, 서비스업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전형적인 선진 시장경제 산업구조의 패턴을 형성하고 있음.
- 농업 부문은 체제 전환 이후 정부의 농산물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타격을 받았고, 석탄, 철강 등의 중공업 부문은 급진적인 사회변혁 없이 점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해 농업부문과 같은 타격을 받지 않았음.
- 폴란드의 교역상대방은 EU 회원국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고 유럽 금융시스템과의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EU 회원국의 경제상황 변화, 특히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폴란드 경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음.
- 2011년 기준으로 수출상대국의 78%가 EU 국가들이고, 폴란드 은행 자산의 약 60%를 다른 유럽국가의 은행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IMF, Country Report, July 2012).

<주요 경제구조 지표>

- 산업별 GDP 대비 생산비중('11): 서비스업 63.0%, 제조업 33.6%, 농업 3.4%
- 주요 수출대상국('11): 독일(27.0%), 영국(6.6%), 체코(6.4%), 프랑스(6.3%)
- 주요 수입대상국('11): 독일(28.7%), 러시아(10.3%), 네덜란드(5.9%), 이탈리아(5.4%)

## 나. 성장잠재력

### □ 중동부 유럽지역 최대 시장으로 지정학적 이점 보유

- 폴란드의 인구는 3,890만명, GDP는 4,877억 달러 규모로 주변의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3개국을 합친 것보다 많은 인구와 큰 경제규모를 보유한 중동부 유럽 지역의 가장 큰 소비시장임.
- 지리적으로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발틱 3국, 체코, 슬로바키아 7개국과 국경을 접해 중동부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서유럽과 연결되는 지정학적 이점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위치를 이용해 폴란드는 서유럽 앞으로 활발히 수출활동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서유럽에서 수입한 완제품 및 원부자재를 주변국 앞으로 재수출하고 있음.

### □ 저임금의 우수한 노동력 풍부

- 폴란드는 EU 회원국 중 가장 많은 노동가능인구(25~64세)를 보유한 나라 중 하나로 노동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64%를 차지하며, 전체 인구 중 약 25%가 20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층으로 구성되어 있음(2011년 6월 폴란드 통계청).
- 고등교육 이수율이 EU 회원국 중 4위로 노동가능인구의 약 89%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등 우수한 유휴 노동력이 풍부함. 높은 교육수준에 비해 인건비는 2013년 월평균 890유로(약 130만원) 수준으로 여타 EU 회원국에 비해 저렴함.
- 높은 교육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해 유럽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생산기지로 인식되어 왔으며, 유럽 내에서도 서유럽 국가들이 폴란드로 공장을 이전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입의 유인이 되고 있음.

### □ 2008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위축

- 폴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으로 2004년 EU 가입 이후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이 지속되었음. 2006~08년 폴란드에 대한 FDI 유입실적은 각각 196억 달러(전년 대비 90.4% 증가), 236억 달러(20.2%), 148억 달러(-37%)로 나타남.

- 2009~10년 FDI 유입실적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투자유인 감소 및 투자 계획 축소 등으로 각각 129억 달러, 139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이는 주요 교역상대국이자 직접투자국인 서유럽 경제권의 경기침체로 동유럽에 대한 투자유인이 크게 줄어든데다,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산업설비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고 기업경영실적이 악화된 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2011년에는 미국, 중국, 인도 등이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전년 대비 36% 증가한 189억 달러의 FDI가 유입된 것으로 집계됐으나 2012년에는 다시 78% 감소하여 41억 달러를 기록해 FDI 회복이 본격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다. 정책성과

### □ IMF와 신축적 신용공여(Flexible Credit Line: FCL) 계약 체결

- 폴란드는 단기 유동성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국제시장의 신뢰 향상을 위해 IMF와 신축적 신용공여 계약을 2009년 5월(205억 달러, 1년 만기), 2010년 7월(기존계약 6개월 연장), 2011년 1월(300억 달러, 2년 만기) 체결하였으며 2013년 1월, 338억 달러 규모로 이를 증액하고 2년간 연장함.
- IMF의 FCL은 경제 펀더멘털이 비교적 양호한 국가를 대상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의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2009년 3월 24일 도입한 제도로 폴란드, 멕시코, 콜롬비아가 대상국임.

### □ 경기부양을 위해 2012년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 지속 인하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폴란드 통화당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총 250bp 인하)하여 기준금리는 2010년 말까지 3.5% 수준을 유지하였음. 그러나 2011년 들어 내수 증가, 국제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2011년 6월에는 4.5%를 형성하였음.

- 폴란드 통화당국은 목표치를 초과하는 인플레이션이 물가상승 기대를 유발할 수 있고 즈워티화 약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2년 5월 기준 금리를 11개월 만에 4.75%로 인상함. 하지만 경기가 점차 둔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6월 이후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11월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2013년 3월 이후 역대 최저수준인 3.25%를 유지하고 있음(2013년 5월 기준).

#### □ 재정건전화 정책 지속 추진

- 폴란드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2013년 1월 1일자로 세금 우대 조치를 일부 취소하고 새로운 법인세와 분야별 특별세(연료 및 담배 소비세 등)를 도입함. 또 투스크 총리는 2012~13년 중 한시적 적용을 전제로 22%에서 23%로 인상한 부가가치세율을 2014년에도 23%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힘.
- 2012년 정년연장을 포함한 연금개혁을 실시한 데 이어 추가적인 연금개혁이 예상됨. 또 광물(은, 구리) 채굴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새로운 세금 부과, 지방정부의 예산 사용에 대한 제한 도입을 진행 중임. 재정건전화 정책을 지속 추진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10년 -7.9%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래 매년 축소되어 2012년 말 -3.5%를 기록함.

#### □ EURO 2012 개최에 따른 경기 활성화 및 인프라 투자 증가

- EURO 2012(축구대회) 개최기간 동안 폴란드에는 총 65만2천명의 외국 축구팬들이 방문하여 8억 즈워티(2.6억 달러)를 지출하였으며, 음료 및 요식업 매출은 3억8천만 즈워티(1.7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됨.
- 폴란드는 대회 개최를 위한 도로, 경기장 건설 등에 '08~'12년간 854억 즈워티(약 198억 유로)를 투자하였으며, 이 중 교통인프라가 86%, 스포츠 인프라가 5%, 호텔과 기타 분야가 9%의 비중을 각각 차지함.
  - 대규모 투자로 도로, 철도 등 낙후된 교통인프라를 개선할 계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경제의 생산성 및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관광 매력도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폴란드 체육관광부는 EURO 2012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 2020년까지 폴란드 GDP가 2009년 기준 1.4~2.7%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동 기간 중 총 GDP 증가 규모는 약 184억~366억 즈워티(42억 7천만~84억 9천만 유로)로 예상됨.



### 3. 대외거래

#### □ 유로존 경기침체로 총수출증가율 둔화

- 2010년 기준으로 폴란드의 총수출 규모는 2,059억 달러로 GDP의 44% 수준이었으며, 총수출증가율은 매년 20% 내외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2009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1%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는 전년 대비 16% 수준으로 회복함.
- 2011년에도 하반기 즈워티화 약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강화로 총수출증가율은 16%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2년에는 유로존 경제성장률이 -0.6%를 기록(2011년 1.4%)하는 등 주요 교역국의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되어 총수출증가율이 -3% 수준을 기록함.

#### □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적자폭은 축소

- 폴란드의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구조로,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수출규모가 위축되었으나 경제활동 둔화로 인한 상품수입의 급격한 감소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008년의 -6.6%(350억 달러)에서 -4.0%(172억 달러)로 개선됨.
- 2010년에는 독일 등 주요 교역국의 해외수요가 늘어나 수출이 전년에 비해 16% 가량 증가하였지만 민간소비 증가,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 등으로 수입이 늘어나 상품수지 적자가 전년에 비해 급증한 11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5.1%(240억 달러)을 기록함. 다만, 글로벌 유동성 경색현상이 완화되면서 포트폴리오 투자 등 외국인투자가 유입되어 자본수지가 개선된 점은 경상수지 적자 관리의 부담을 덜어줌.
- 2011년에는 즈워티화 약세로 인한 순수출 증가, EURO 2012 대회와 관련된 대규모 인프라 투자의 단계적 축소 등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4.9%(250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되었고, 2012년에는 즈워티화 가치 하락, 국내수요 감소로 인한 수입 감소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3.6% 수준으로 축소됨.

□ 외환보유액 증가세

- 폴란드의 외환보유액은 2008년 말 589억 달러로 월평균 수입의 2.7개월분 수준이었으나 2009년 4월 이후 외환금융시장 상황이 점진적으로 호전되면서 2009년 말 기준으로 외환보유액은 734억 달러로 월평균 수입의 4.6개월분 수준으로 개선됨. 외환보유액은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12년말 외환보유액은 1,003억 달러로 월평균 수입 4.8개월분을 기록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sup>e</sup>
경 상 수 지	-34,957	-17,155	-24,030	-25,023	-17,400
경 상 수 지 / G D P	-6.6	-4.0	-5.1	-4.9	-3.6
상 품 수 지	-30,611	-7,621	-11,798	-14,036	-12,242
수 출	178,475	142,081	165,721	195,209	188,333
수 입	209,086	149,702	177,519	209,245	200,575
외 환 보 유 액	58,931	73,394	86,317	89,688	100,317
총 외 채 잔 액	218,022	250,744	297,310	320,067	310,763
총 외 채 잔 액 / G D P	46.0	64.9	68.7	68.3	67.1
D S R	15.7	9.2	14.7	11.7	10.8

자료: IMF, EIU, IIF.

4. 외채상환능력

□ 외채상환부담은 점진적 완화 추세

- 폴란드의 연도별 외채 규모의 변동성이 최근 확대되고 있는데, 2008년 이전에는 외채구조가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외채구조가 악화됨. 그러나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GDP 대비 총외채잔액이 2011년과 2012년에 연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외채상환부담은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임.

\* OECD는 2011년 10월 폴란드를 OECD 고소득국으로 분류, 더 이상 국가 위험도를 평가하지 않음에 따라 2011년 이후 외채관련 지표는 전망치임

- DSR : 15.7%('08) → 9.2%('09) → 14.7%('10) → 11.7%('11) → 10.8%('12)

- 총외채잔액/총수출: 105.0%('08) → 152.8%('09) → 148.2%('10) → 147.9%('11) → 147.5%('12)

- 총외채잔액/GDP: 46.0%('08) → 64.9%('09) → 68.7%('10) → 68.3%('11) → 67.1%('12)

### Ⅲ. 정치·사회 동향

#### 1. 정치안정

##### □ 2011년 10월 총선에서 시민강령당(PO) 재집권

- 2011년 10월 9일 실시된 폴란드 하원(Sejm) 총선에서 중도우파 성향의 집권 여당인 시민강령당은 39%(207석)를 확보함으로써 득표율 30%로 157석에 그친 보수 성향의 법과정의당에 승리함. 이는 1989년 체제변혁 이후 최초로 집권당이 연임에 성공한 사례로, 폴란드의 정치 안정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됨.
- 2007~11년간 연정을 구성, 집권하였던 시민강령당과 농민당(8.4%, 28석)은 10월 총선 이후 재차 연정을 구성하여 총의석 460석 중 과반수인 235석을 확보하였으며 시민강령당 당수인 도날드 투스크 총리가 총리직을 연임함.

##### □ 재정개혁안 등을 둘러싸고 정치적 긴장 잠재

- 투스크 총리는 유로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재정 개혁안을 발표하고 정년 연장 등 연금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연정파트너인 농민당이 반대하여 연정내 불화가 가시화되면서 최악의 경우 연정 붕괴 및 이에 따른 조기총선 국면까지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함.
- 2012년 5월 폴란드 의회는 2040년까지 정년을 67세로(현재 남자 65세, 여자 60세)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금 개혁법안을 승인함.

- 농민당이 투스크 총리의 완강한 입장에 굴복하여 연금제도 개혁안에 찬성함으로써 연정내 불화는 일단락되었으나, 정부가 농민당의 주요 지지층인 농민에 대한 보조금 삭감 및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유사한 불화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2010년 4월 발생한 폴란드 대통령 전용기 추락사건에 대해 제1야당인 법과정의당(PiS)이 사고에 러시아가 개입되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투스크 총리가 이를 비판함에 따라 집권여당인 시민강령당과 법과정의당 사이에 정치적 긴장이 지속됨.
- 2013년 4월 투스크 총리가 배아실험에 대한 정치적 견해 차이로 사법부 장관을 경질하는 등 시민강령당 내 진보/보수와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음.

**□ 2012년 이후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율은 저조한 수준**

- 집권여당인 시민강령당은 연금제도 개혁 등 각종 비인기성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지지율 하락을 겪음. 2011년 10월 총선 당시 39.18%의 득표율을 기록하였던 시민강령당에 대한 지지율은 2012년 4월 30%를 기록하였으며, 유로 2012 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7월 초에는 32%로 상승하였으나 7월 말에는 다시 27%로 하락함.
- 농업 보조금 분배와 관련된 부정 의혹을 받아온 마렉 사비츠키(Marek Sawicki) 폴란드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이 2012년 7월 사퇴하면서 정부의 청렴도에 대한 신뢰에 타격을 입음.
- 그러나 지속되는 유럽 경제위기 속에서 폴란드는 EU 회원국 중 가장 양호한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어 시민강령당에 대한 지지율은 소폭 상승하여 2013년 3월말 29%를 기록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사회 치안상태 매우 양호**

- 경제성장에 따른 빈부격차 확대, 재정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개혁 정책 추진으로 복지혜택의 축소가 불가피한 점 등이 국민들의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정도의 수준은 아님.

- 2004년 4월 EU 가입 이후 110만명(인구의 3%)의 폴란드인이 해외에 이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최근 이민 및 해외취업 증가와 더불어 고용 증대(2006~07년 평균 4%)로 실업률이 2005년 17.8%에서 2008년에는 7.1%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2009년 이후 글로벌 경기위축으로 폴란드 고용 사정도 다소 악화되어 실업률이 점진적인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실업률: 7.1%('08) → 8.2%('09) → 9.6%('10) → 9.6%('11) → 10.3%('12)

#### □ 소요/사태 발발가능성 낮아

- 폴란드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관련하여 테러 위협이 있었지만 실제 폴란드 내에서의 테러 위협은 미미하며, 주변 국가와의 직접적인 무력충돌 위험은 적음.
- 자국 내 시위 및 시민 불복종운동은 합법적인 시민활동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는 1980년 8월에 창설된 중도좌익 성향의 자유연대노조(Solidarity Trade Union)와 같은 역사적 경험에서 유래됨.

### 3. 국제관계

#### □ EU 및 미국과의 외교관계 강화

- 폴란드는 2011년 하반기 EU 순회의장국을 역임했으며, EU 내 영향력 확대와 유럽의 통합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폴란드는 EU 회원국의 재정규율을 강화하자는 독일의 입장에 우호적이지만, 은행연합 도입 등 EU가 제시한 범유럽 차원의 계획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
- 폴란드를 비롯하여 2004년 4월 EU에 신규 가입한 9개국(사이프러스 제외)이 2007년 12월 쉥겐조약에 가입함으로써 가입국간 국경이 개방되어 EU 회원국 간 민간교류 및 사회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고 있음.
- 러시아의 유럽지역 서진을 차단하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폴란드에 대해 미국은 긴밀한 군사 외교적 관계를 강화함.

-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2011년 5월 폴란드를 방문하여 미국의 지속적인 폴란드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롬니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도 2012년 7월 폴란드를 방문하여 양국 간 유대관계를 강조함.

□ 주변국과의 관계개선 노력

- 미국 일변도의 안보 정책에 비판적인 투스크 총리는 독일,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우호적인 대외관계 수립을 추진함.
- 과거사 문제로 악화되었던 독일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등 대 EU 경제협력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함.
- 2010년 4월 폴란드 대통령 전용기 사고 이후 소원해졌던 러시아와의 관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2011년 들어 사고원인 규명을 둘러싸고 갈등이 초래되었으며 북부 가스관(Nord Stream) 건설에 대해서도 양국이 이견을 보임.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1990년대 중반 이후 채무재조정 경험 없으며, 외채상환태도 양호

- 폴란드 정부는 1991년,1994년에 각각 파리클럽과 런던클럽을 통하여 채권단과 채무재조정에 합의함. 동 합의에 따라 당시 외채의 50%(순 현재가치 기준) 정도가 탕감되고, 나머지는 파리클럽과 런던클럽에 각각 2014년, 2024년까지 채무상환이 연장되었음.
- 2005년 폴란드 정부는 파리클럽 대상 채무의 조기상환 의사를 밝혔으며 파리클럽이 이에 동의함에 따라 2009년까지 해당 채무를 조기상환하여 현재 파리클럽 채무 잔액은 없음.
- 1994년 대기성차관 지원 이후로 IMF의 자금을 인출한 적이 없는 등 외채상환태도가 양호하며, 신축적 신용공여 계약 체결로 국제금융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음.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 2011~12년 대 폴란드 수출 감소

○ 우리나라의 대 폴란드 수출은 2002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가 폴란드의 경기침체로 2011년 수출액이 전년 대비 6.4% 감소한 데 이어 2012년에도 전년 대비 10.3% 감소하여 3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통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12년 기준 폴란드는 우리나라의 29위 수출대상국, 59위 수입대상국임.

○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폴란드 주요 수출품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영상기기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육류, 원동기 및 펌프 등임.

#### □ 해외직접투자현황('13. 3월말): 153건, 13억 9,531억 달러(투자실행 누계 기준)

○ 2010년 우리나라의 대 폴란드 직접투자는 글로벌 경기침체 완화에 따라 전년 대비 83% 증가한 5,531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1년에도 55% 증가하여 8,551억 달러를 기록함. 그러나 2012년에는 유럽 지역의 경기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전년 대비 70% 급감한 2,605만 달러를 기록해 1995년 이후 가장 저조한 투자실적을 보임.

○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 건설업이며, 제조업 중에서는 수송기계(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의료, 정밀, 광학기기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음.

<표 4> 한·폴란드 교역규모

단위: 천 달러

대 브라질	2010	2011	2012	주요품목
수 출	4,381,011	4,100,788	3,667,297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영상기기, 광학기기, 무선통신기기
수 입	273,570	376,178	535,046	육류, 원동기 및 펌프, 타일 및 도자기제품, 자동차부품
합 계	4,654,581	4,476,966	4,202,343	

자료: 한국무역협회.



## V. 종합의견

- 폴란드의 2012년 경제성장률은 주요 교역국인 유로존 국가들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전년 대비 둔화된 2.0%를 기록하였으나, EU 회원국 전체(-0.2%) 수준에 비해 양호함. 경제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물가 상승률은 전년 수준보다 소폭 하락한 3.7%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함. 지방정부 지출 억제, 부가세 인상 등 재정개혁 추진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를 2011년 -5.0%에서 2012년 -3.5%로 축소시켰으나 당초 목표치인 -3%에는 미치지 못하며, 재정 건전화와 경기부양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임. DSR이 2010년 이후 지속 하락세를 보이는 등 외채상환부담이 점진적 완화 추세인 점은 긍정적임.
- 2011년 10월 실시된 하원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중도우파 성향의 시민강령당이 승리하여 농민당과 연정을 구성함. 투스크 총리가 추진하는 연금제도 개편 등 재정개혁안을 둘러싸고 정치적 불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잠재해 있으나, 확실한 의회 기반을 마련하고 있어 다음 총선이 예정된 2015년 말까지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폴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내수기반, 지속적인 EU기금 유입, IMF와의 신축적신용공여(FCL) 계약 체결 등으로 경제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긍정적임. EURO 2012 대회 개최에 따른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성장 잠재력이 확충되었으며, 재정개혁 추진에 따른 정부지출 축소로 단기적인 경기 둔화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인 국제신인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폴란드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은 2009년 이후 조정되지 않고 상위 투자적격등급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함.

조사역 이주은 (☎02-3779-5712)  
E-mail: june@koreaexim.go.kr